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Relevant Variables of Effectiv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문 혁 준*

Hyukjun M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and the family context relate to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cumulative positive variables on effectiv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Subjects were 220 each mothers and fathers of 6-year-old children. Data were analyzed with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chi-square. Both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were correlated with child birth order, child emotionality, attention span and persistenc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nd retrospective punitive parenting. Perceived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were predictive of m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and child emotionality was predictive of paternal disciplinary practices. Both mothers and fathers exposed to several positive variables were much more likely to exhibit effective disciplinary practices than parents exposed to no positive variables. Findings were generally consistent with Belsky's(1984) process model of parenting.

Key Words : 아동(child), 부모(parent), 훈육(discipline),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 가톨릭대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전임강사

I. 서론

사회구조와 가족형태가 바뀐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훈육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비중은 조부모 또는 일가 친척에 의존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SES) 계층에 상관없이 아동의 바람직한 가치관, 태도 및 행동에 있어 부모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과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지대함을 감안할 때(Patterson, Reid, & Dishion, 1992) 부모의 훈육방식 및 행동은 취학전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결과로써 아동의 발달적 특성 즉 도덕적 판단력(정종화, 1997), 문제해결력(서찬원, 1995), 의사결정유형(원유미, 1999), 지각되는 우울/외로움의 정도(허승연, 1998), 스트레스 대처 양식 및 행동(서성은, 1996), 적대감(송종현, 2000), 문제행동(김혜영, 2000), 자아개념 및 자존감(조규성, 2000), 친사회적행동(이갑희, 1997), 정서지능(안현지, 1999), 학업성취(민영한, 1998) 등은 부모의 양육(훈육)태도 및 유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의 양육(훈육)태도와 아동의 발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은 부모의 양육(훈육)태도가 가정의 분위기 및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모양육(훈육)태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영향력이 강조되어 오면서 가족의 구성이나 가정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과 자녀의 개인적 특성 등과 부모

양육(훈육)태도는 서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토대로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훈육) 행동 및 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아동 변인(child factors), 부모변인(parent factors), 상황적 변인(contextual factors)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아동 변인에는 성별, 출생순위, 기질 등을 들었다. 즉 부모는 남아(Block, 1983)와 첫 아이(Ward, Vaughn, & Robb, 1988)에게 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순한 기질을 가진 아동에 비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에게 더 방임적이며 통제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Bates, 1985; Lytton, 1990).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최시원, 1997), 아동의 기질에 상관없이 유사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oniak-Griffin & Verzemnieks, 1993).

부모변인에는 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이 제시되었다. 즉 몇몇 연구(Fox, 1995; 이광자, 1992; 김인순, 1991)에서는 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있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지적된 반면 김진남(1987)과 이영주(198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인 것으로 상반적인 결과를 밝혔다.

상황적 변인에는 총 자녀수, 사회 경제적 지위,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 정도, 아동기 훈육경험 등에 대해 연구되어져 왔다. 즉 김진남(1987)은 자녀를 하나만 가진 어머니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해 애정적·수용적 태도를 취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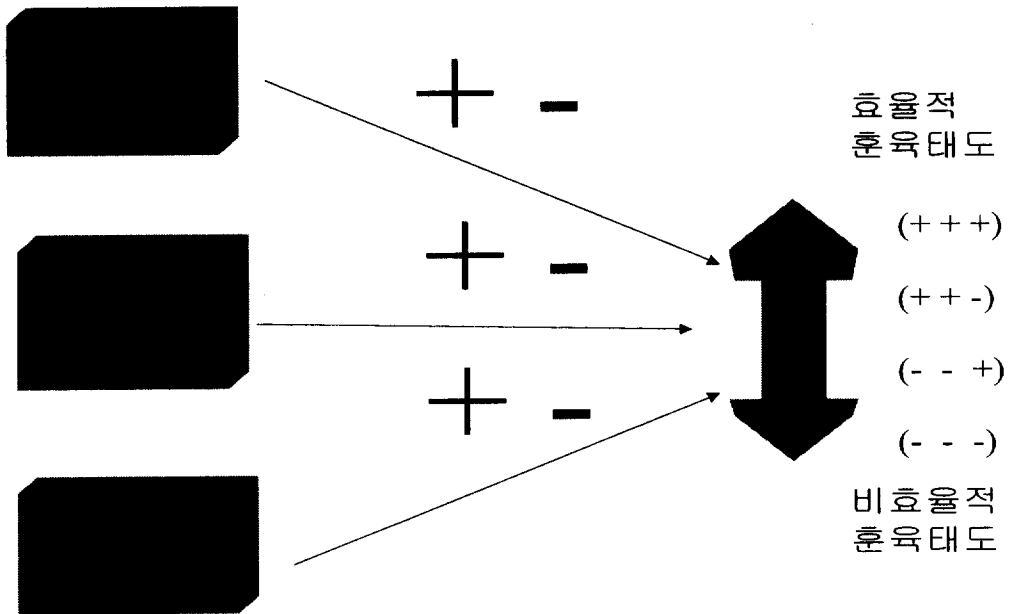
있어 더 온정적이며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양장애, 1999; 신경중, 1993). 또한 생활만족수준과 사회적 지원정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수행도가 높으며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민현숙·정영숙, 1998; 도현심·김지신, 1997; Andreson & Telleen, 1992), 아동기에 부당한 양육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과거의 경험과 유사한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sky & Vondra, 1993; Laub & Sampson, 1998).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각각의 변인에 대한 관계 또는 영향력을 찾고자 하는데 머물러 부모훈육태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총체적으로 밝혀 주기에는 부족하며, 아동, 부모, 상황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부모훈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Luster와 Okagaki(1993, p.351)에 의하면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부모들은 서로 다른 자녀양육 방식을 가지므로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들을 하나씩 생각하기 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된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부모훈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부가적이거나 누적적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아동의 기질이 까다로우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세 가지 요인을 한 연구에서 모두 인지할 때 이 세 가지 요인 중 한 요인만 인지할 때에 비해 부모의 훈육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핵가족화와 급증하는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에 대

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Lamb, 1997; Amato & Rivera, 1999; 김광웅·이인수, 1998)는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반해 한 가정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다룬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고 접하는 환경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들의 훈육태도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짐작할 때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구는 부모의 훈육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이들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과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미치는 누적적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부모훈육태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문혁준, 1998)를 토대로 부모훈육태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에 따른 훈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에 따라 부모훈육태도의 관련 변인들간에 누적적 효과를 가정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동 변인, 부모 변인, 상황적 변인에 속하는 각 예측 변인들을 긍정 변인과 위험 변인으로 나누고 이를 토대로 긍정 변인에게는 (+)를 주고 위험 변인에게는 (-)를 준다. 즉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원정도가 높으며, 영아가 순한 기질을 보이면 그 가정은 3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적



〈그림 1〉 연구 모형 + : 긍정변인 ; - : 부정변인

지원정도가 낮으며, 영아가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면 그 가정은 0점을 받게 된다(---). 만약에 이 지표들 중 1개 또는 2개가 (+)를 받으면 각각 1점 또는 2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3점(+++)을 받게 되는 가정은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일 확률이 0점(---), 1점(--+), 2점(-++)을 받는 가정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

기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훈육태도와 관련되는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훈육태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변인들의 누적된 결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법을 동시에 비교분석하기 위해 양친부모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유치원에 자녀를 취원시키는 아버지와 어머니 22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

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73.1%, 40대가 26.4%, 50대가 0.5%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7.7세(SD=3.68)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0.9%, 30대 91.8%, 40대 7.3%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4.6세(SD=3.19)이었다. 대상 부모의 아동 특성은 남아 59.5%, 평균 연

령 6.18세(SD=.65)이었으며, 출생 순위가 첫째인 아동이 56.4%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 3.2%, 100~199만원의 가정이 51.4%, 200~299만원이 27.3%, 300~399만원이 11.8%, 400만원 이상이 6.4%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1명이 12.3%, 2명이 78.2%, 3명이 8.6%, 4명 이상이 1.0%를 나타내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90%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의 교육 수준 및 직업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교육 수준 및 직업 분포

		부(父) %(명)	모(母) %(명)
교육 수준(%)	고졸이하	1.5(3)	1.8(4)
	고졸	31.4(69)	45.9(101)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3.4(30)	19.5(43)
	대졸	43.7(96)	30.1(66)
	대학원졸	10.0(22)	2.7(6)
직업(%)	회사원	55.9(123)	3.2(7)
	중소기업경영주	8.2(18)	0.0
	상인	11.4(25)	2.7(6)
	교육자	4.5(10)	6.4(14)
	건축업	6.4(14)	0.0
	공무원	4.5(10)	2.7(6)
	주부	0.4(1)	77.3(170)
	서어비즈니스	3.7(8)	2.3(5)

2. 연구 도구

1) 부모 훈육태도

부모 훈육태도에 대한 도구는 Arnold, O' Leary, Wolff와 Acker(1993)에 의해 제작된 Parenting Scale이 사용되었다. 본 도구는 총 21문항이며, 하위영역은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방임성, 과잉반응성, 상황적 언어 표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에 문항들의 예를 살펴보면

방임성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게 내버려 둔다', 과잉반응성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소리를 지른다', 상황적 언어 표현성에서는 '아이와 길게 언쟁을 벌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일관적이고, 과잉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언어표현에 있어 간단 명료하여 전체적으로 효율적 훈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2) 아동의 기질(아동 변인)

아동의 기질은 Rowe와 Plomin(1977)의 CCTI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가 사용되었다. 하위영역은 사회성, 진정성, 활동성, 정서성,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며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우호적 측면을 가리키며, 진정성은 격한 감정에서 쉽게 진정되는 경향을 뜻한다. 활동성은 전체적인 활동량을 의미하고, 정서성은 감정 표현에 있어 반응의 강도를 나타내며,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은 한 가지 활동에 얼마나 오랫동안 몰두하는가를 뜻한다.

이 도구는 '완전 불일치'의 1점에서부터 '완전 일치'의 5점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이며,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이고, 진정이 쉽게 되며, 활동적이고, 감정 표현이 격렬하지 않으며,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긴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사회적 지원 정도(상황적 변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조

사하기 위하여 Weiss(1974)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정보적 지지, 의존적 지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 정서적 지지, 소속감의 지지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에 속한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정보적 지지는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의존적 지지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는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타인에 대한 지지는 '나에게 의지하는 타인이 있다', 정서적 지지는 '나는 타인과 친밀감이 있다', 소속감의 지지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등이다. 각 영역에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에 반하는 12문항의 경우에는 역채점 되었다. 총 점수범위는 24~9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4) 생활만족도(상황적 변인)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Andrews 와 Withey(1976)가 개발한 Quality of Life Scale의 10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업만족도, 치안만족도, 자아성취만족도, 거주지만족도, 자아평가도, 재정만족도, 건강만족도,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가구 등에 대한 생활수준만족도가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아주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대체로 불만족'(3점), '대체로 만족'(4점), '만족'(5점), '매우 만족'(6

점)으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해 만족스럽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척도	문항수	신뢰도
혼육태도		
방임성	9	.67
파양반응성	5	.74
상황적 표현성	7	.66
전체	21	.73
가질		
사회성	5	.79
진정성	5	.62
활동성	5	.58
정서성	5	.71
주의집중기간 및 지속성	5	.74
전체	25	.67
사회적 지지		
정보적 지지	4	.77
의존적 지지	4	.60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4	.70
타인에 대한 지지	4	.73
정서적 지지	4	.70
소속감의 지지	4	.63
전체	24	.92
생활만족도	10	.83
아동기 경험		
지원적 혼육경험	7	.88
처벌적 혼육경험	4	.81

5) 아동기 혼육경험(상황적 변인)

부모의 아동기 혼육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 첫째, Simons, Beaman, Conger와 Chao(1992)에 의해 개발된 지원

적인 훈육도구는 총 7문항의 5점 척도이며, 문항의 예는 가족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유를 설명해주었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7~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의 훈육 경험이 더 지원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처벌적인 훈육도구는 Straus, Gelles와 Steinmetz(198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총 4문항의 5점 척도이며,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였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의 훈육경험이 더 처벌적이었음을 뜻한다. 두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의 절차는 부산직할시 소재 4개 유치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250부(아버지용 질문지 250부, 어머니용 질문지 250부)이고 회수된 질문지는 235부로서 94%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이 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거나 한쪽의 부모만이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0부(아버지·어머니)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모든 분석을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의 계수 α 를 구하였다.

자료의 분석절차로는 연구문제 1의 부모의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의 부모의 훈

육태도에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문제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토대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부모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누적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긍정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방법으로 연구문제 1에서 밝혀진 유의한 독립변인을 토대로 긍정성 요인 유무(긍정성 유=1; 긍정성 무=0)를 환산하였으며, 긍정성 요인의 총 지수로 나타냈다. 다음의 요인이 각각 긍정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① 자녀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이다. ② 아동 기질의 각 하위 변인인 정서성과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 점수가 상위 1/3에 있다. ③ 총 자녀수가 2명 이상이다. ④ 사회적 지원정도의 점수가 상위 1/3에 있다. ⑤ 생활만족도의 점수가 상위 1/3에 있다. ⑥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 점수가 하위 1/3에 있다. 아버지의 경우 ① 자녀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이다. ② 아동 기질의 각 하위 변인인 사회성, 진정성, 정서성,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 점수가 상위 1/3에 있다. ③ 사회적 지원정도의 점수가 상위 1/3에 있다. ④ 생활만족도의 점수가 상위 1/3에 있다. ⑤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 점수가 하위 1/3에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부모훈육태도의 점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훈육집단을 비효율적인 훈육집단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인 220명의 어머니와 220명의 아버지 중에서 하위 1/3의 점수(부: 70점 이하; 모: 76점 이하)를 얻은 집단인 74명의 어머니와 73명의 아버지를 효율적인 훈육집단으로 분류한 후 긍정 요인의 총 지수(0개부터 4개 이상)에 속하는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과 부모훈육태도와의 관계

부모의 자녀훈육태도에 관계되는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동변인에서 출생순위($r=-.16, p<.05$), 정서성($r=-.22, p<.01$), 주의 집중기간 및 지속성($r=-.23, p<.001$)과 상황적 변인에서 총 자녀수($r=-.13, p<.05$), 사회적 지원정도($r=-.24, p<.001$), 생활만족도($r=-.27, p<.001$),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r=.26, p<.01$)의 변인들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감정의 표현에 있어 반응강도가 낮을수록, 주의 집중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원정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이 적을수록 어머니는 더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출생순위($r=-.14, p<.05$), 사회성($r=-.13, p<.05$), 진정성($r=-.15, p<.05$), 정서성($r=-.37, p<.001$), 주의집중 기간 및 지속성($r=-.20, p<.01$)과 상황적 변인에서는 사회적 지원정도($r=-.19, p<.01$), 생활만족도($r=-.31, p<.001$),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r=.16, p<.05$) 변인들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사교적일수록, 쉽게 진정될수록, 감정의 표현에 있어 반응강도가 낮을수록, 주의 집중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사회적 지원정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이 적을수록 아버지는 더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3>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과 부모훈육태도간의 관계

독립변인	부모훈육태도	
	어머니(N=220)	아버지(N=220)
	r	r
아동변인		
출생순위	-.16*	-.14*
기질		
사회성	-.11	-.13*
진정성	-.13	-.15*
활동성	-.11	-.12
정서성	-.22**	-.37***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	-.23***	-.20**
상황적 변인		
총자녀수	-.13*	.02
사회적 지원정도	-.24***	-.19**
생활만족도	-.27***	-.31***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	.20**	.16*

* $p<.05$, ** $p<.01$, *** $p<.001$

2.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이 부모의 훈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부모의 훈육태도에 영향력이 큰 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연구문제 1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50 이하로 독립변인들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에서는 중다회귀분석결과 부모훈육태도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독립변인들만을 제시하였다. 즉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들 중 상황적 변인에서 사회적 지원정도($\beta=-.16$)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β

=.13) 또한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적 지원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훈육태도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동변인의 기질에서 정서성($\beta=-.24$)이 아버지의 훈육태도에 유일하게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감정표현에 있어 반응강도가 낮을수록 아버지는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 변인에 의해 어머니 양육태도의 15%, 아버지 양육태도의 17%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훈육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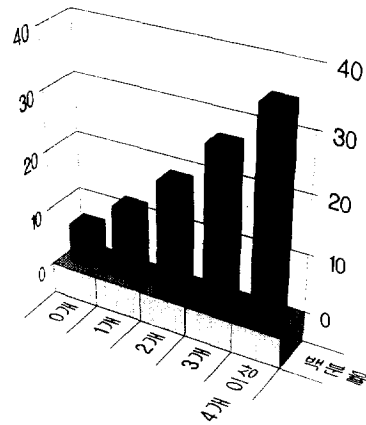
독립변인	부모훈육태도	
	어머니(N=220)	아버지(N=220)
	β	β
아동변인		
기질		
정서성		-.24*
상황적 변인		
사회적 지원정도	-.16*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	.13*	
R ²	.15	.17
F	4.49***	5.32***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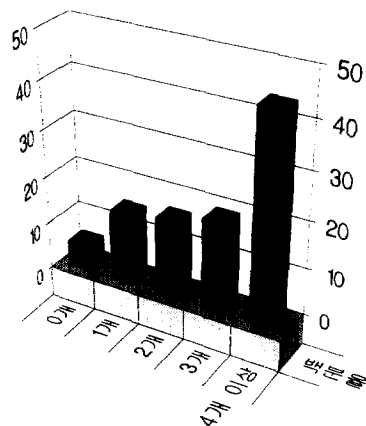
3. 부모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있어 아동, 부모, 상황적 변인의 누적적 효과

부모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변인들의 누적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긍정적 변인의 갯수는 어머니의 경우 최대 7개(자녀의 출생순위, 기질의 하위 영역인 정서성과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

성, 총 자녀수, 사회적 지원정도, 생활만족도,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이며, 아버지의 경우 최대 8개(자녀의 출생순위, 기질의 하위



〈그림 1〉 어머니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미치는 누적 변인의 효과



〈그림 2〉 아버지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미치는 누적 변인의 효과

<표 5>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누적된 효과

변인수	어머니(N=74)		아버지(N=73)	
	대상수 (명)	백분율 (%)	대상수 (명)	백분율 (%)
0개	5	6.8	4	5.5
1개	9	12.2	11	15.1
2개	14	18.9	12	16.4
3개	20	27.0	14	19.2
4개 이상	26	35.1	32	43.8
χ^2	38.90***		39.11***	

***p<.001

영역인 사회성, 진정성, 정서성, 주의 집중 기

간 및 지속성, 사회적 지원정도, 생활만족도,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이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개 이상의 긍정 변인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35.1%가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반면 긍정 변인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어머니는 6.8%만이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그림 1 참조>. 또한 아버지의 경우는 4개 이상의 긍정 변인을 가진 경우 43.8%가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반면 긍정 변인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아버지는 5.5%만이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여<그림 2 참조> 긍정 변인이 많을수록 부모 모두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전라북도 교육청의 보고서(1993)에 의하면, 현대의 부모는 일관된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 또한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훈육태도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가정의 훈육을 책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 부모, 상황적 특성이 부모의 훈육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육태도에 관련되는 변인들간에 유사점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육태도 모두 아동의 출생순위, 기질의 하위 영역인 정서성과 주의집중기간 및 지속성, 사회적 지원정도, 생활만족도,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즉 출생순위가 늦을 수록,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내는 정서성이 낮을수록, 주의 집중기간 및 지속성이 길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원정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이 적을수록 부모는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의 경우 출생 순위에 따라 훈육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임희수, 1994), 아동의 높은 정서성은 어머니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자주 경험하게 하며(한세영·박성연, 1996),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umas & LaFrenter, 1993)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지적 발달 및 학업성취에 주요 변수로써 작용하는 주의 집중 기간 및 지속성이 부모훈육태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조기교육풍조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육태도 모두 자녀의 성별,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정중화(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현대에는 각 가정이 한 명내지 두 명의 자녀만을 가지는 핵가족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따라 훈육태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취원시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가정의 소득수준보다 부모의 심리적인 만족감이 부모의 훈육태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육태도에 관련되는 변인들간에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훈육태도는 어머니와 달리 아동의 사회성과 진정성과 관련이 있었다. 즉 아동의 기질이 사교적이며, 쉽게 진정될수록 아버지는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와의 관계는 놀이지향적(Yogman, 1981)이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성이 긍정적일 경우 더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머니에 비해 부족한 아버지의 훈육기술과 양육경험(Lamb, 1997)에 기인하여 아동의 진정 수준이 아버지의 훈육태도에 중재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자녀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박영희(1992)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단지 가능한 한가지 해석으로 자녀를 하나 이상 둔 어머니의 경우 축적된 자녀 양육 경험을 토대로 더 효율적인 훈육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결과(문혁준, 1998)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경우 아동 변인에서 기질의 하위 변인인 사회성, 진정성, 정서성, 상황적 변인에서 사회적 지원정도, 생활만족도, 가정의 소득정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아동 변인에서 성별, 기질의 하위 변인인 정서성, 상황적 변인에서 사회적 지원정도 생활만족도, 가정의 소득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나타난 유사점은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정도와 생활만족도는 문화를 초월하여 부모훈육태도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에 있어서도 대가족의 유형에서 벗어나 핵가족화 되고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의 수준이 증가되면서 사회적 지원과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아버지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달리 아동의 성별이 훈육태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성과 진정성과 관련이 있음은 흥미로운 결과로써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훈육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넷째, 부모의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에 있어 아버지는 아동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는 상황적 변인이 가

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아동의 정서성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아동 변인에서 정서성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진 결과(문혁준, 1998)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은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초래한다는 결과를 입증하는 것으로써(Patterson, 1982) 부모의 훈육태도를 거론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기질과 순한 기질의 차원에서 벗어나 기질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는 아동 변인보다 상황적 변인 즉 사회적 지원 정도와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경험이 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지원정도를 높게 느낄수록 그리고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처벌 경험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훈육태도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 및 효율적인 통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영숙·조은영, 1996; Meyers, 1999)와 일치하며, 부모가 아동기에 거부의 경험이 있고 현재 사회적 지원정도가 낮은 경우 신경질적이며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Crockenberg, 1987)는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훈육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는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서 초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권영인·이숙현, 2000), 이로 인해 매일의 생활에서 반복되는 경미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인 사회적 지원(유우영·최진아·이숙, 1998)이 어머니에게 더욱 의미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부모 모두의 경우 상황적 변인에서 생활만족도(quality of life)가 부모훈육태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문혁준, 1998)는 우리나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다르며, 이는 서구문화권의 부모들의 특성과 동양문화권의 부모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Cheng-Gorman & Balter, 1997)와 서양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개인지향적인 문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친밀하며 상호의존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차이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 부모, 상황적 요인들의 누적적 효과를 검토한 결과 긍정변인들의 누적 효과가 부모의 효율적인 훈육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문혁준, 1998)에서 위험변인들의 누적 효과가 비효율적 부모 훈육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부모의 훈육태도는 하나의 변인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변인들의 효과가 매우 중요함을 입증시켜 주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부산 지역에 국한되고 국내의 교육여건에서 유치원에 자녀를 취원시키는 중상류층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타지역과 저소득계층의 부모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둘째, 자료수집에 있어 부모의 보고에 의존하였으므로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부모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기질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실제 사실과 행동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설문지 작성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응답이 서로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부모들의 과거 훈육경험을 정확하게 회상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넷째, 아동의 기질이 부모의 훈육태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조화로운 합치의 개념(goodness-of fit)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써 아동의 기질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훈육방식을 지도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사회적 지원 정도가 어머니의 훈육

태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다.

여섯째, 사회적 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기 처벌경험이 세대간 전이되어 부모훈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아동학대 및 유린을 방지할 수 있는 아동 복지법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요구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모훈육태도는 무수한 환경 변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써 부모와 아동의 특성 그리고 상황적 맥락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다.

V. 참고문헌

- 권영인·이숙현(2000). 맞벌이 부부의 생계담당자 역할의식과 가사역할 수행. 연세대생활과학논집, 14, 49-59.
- 김광웅·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영숙·조은영(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인간발달연구, 3, 15-24.
- 김인순(199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적응과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남(1987). 외동아이고 두 자녀 이상에서 양육태도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김지신(1997). 사회적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문혁준(1998).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127-135.
- 민영한(1998).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숙·정영숙(1998).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수준과 역할수행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0, 281-305.
- 박영희(199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 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성은(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경험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찬원(1995). 부모의 양육유형과 자녀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종현(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통제소재 및 적대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종(1993).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지(1999).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1 : 아버지의 역할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지향. 아동학회지, 20(1), 135-145.
- 원유미(1999).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자아개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육연구, 18, 79-103.
-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갑희(199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사회적행동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1992). 부모의 양육방법이 유아의 사회성과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대여성연구논총, 7, 111-136.
-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통제 및 형제자매 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2), 107-118.
- 임희수(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라북도교육청(1993). 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교육. 가정교육자료, p.9.
- 정종화(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논총, 3, 273-294.
- 조규성(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시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영·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허승연(1998).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가족응집성 변화가 아동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75-384.
- Andreson, P. A., & Telleen, S. L.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ternal behaviors and attitudes :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753-774.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 Plenum Press.
- Arnold, D. S. O' Leary, S. G., Wolff, L. S., & Acker, N. M. (1993). The parenting scale :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 137-144.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Y. & Okagaki, L. (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 Lawrence Erlbaum.
- Block, J.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 Some

-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Cheng-Gorman, J., & Balter, L. (1997). Culturally sensitive parent education : A critical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3), 339-369.
- Crockenberg, S. B.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Duma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Fox, R. L. (1995). Maternal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431-441.
- Koniak-Griffin, D., & Verzemnieks, I. (1993).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infant temperament, child behavior ratings, and interactions during toddlerhood.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7, 26-37.
- Lamb, M. E. (1997). *The role of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New York : Wiley.
- Laub, J. H., & Sampson, R. J. (1998). Unraveling families and delinquency : A reanalysis of the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uster, T., & Okagaki, L. (1993) (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 Lawrence Erlbaum.
- Lytton, H. (1990). Child and parent effects in boy's conduct disorder : A reinterpre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Meyers, S. A. (1999). Mothering in context: Ecological determinants of parent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5, 2, 332-257.
- Patterson, G. R. (1982). *A social learning approach : Coercive family process* (Vol 3). Eugene, OR : Astalia.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 Castalia.
- Rowe, D. C., & Plomin, R. (1977).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 Assessment*, 41, 150-156.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belief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823-836.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Beverly Hills, CA : Sage.
- Ward, M. J., Vaughn, B. E., & Robb, M. D. (1988).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siblings : Role of the mother in cross-sibling consistency. *Child Development*, 59, 643-651.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ed.), *Doing onto others*(pp. 17-26).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Yogman, M. W. (1981). Development of the father-infant relationship. In H. Fitzgerald, B., Lester, & M. W. Yogman (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Vol, pp. 221-279). New York : Plenum.